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민음의 조상>이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 배울게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4천년전 사람으로만 보지 말고, 그의 삶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여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우리의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가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그것들을 배우고 우리에게 적용(適用)하여야 합니다. 사도바울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배우시다, 무엇을 배워야 할지, 오늘 말씀에서 살펴봅시다.

1. 믿음이란, 내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12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믿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믿음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소망, 개인의 소망이 성취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그 믿음이 성취되는 비율이 1%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삶은 소망(所望)이 아니라 곧 절망(切望)이 될 것입니다.

이 점, 믿음이 나의 소망의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내가 꿈꾸는 것보다, 하나님의 꿈은 훨씬 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인간의 소망의 경지를 훨씬 초월하는 광대한 것입니다. 인간의 소망이 주로 세상살이에 대한 것임에 비해, 하나님의 소망은 그것보다는 더 원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믿음을 통해, 성취케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은,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2. 누구든지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이것이 두 번째 아브라함의 교훈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질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유혹(誘惑)과 의혹(疑惑)의 관문(關門)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게 가능할 까>하는 질문이, 반드시 생기게 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도,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그래서 13년동안의 하나님과 교제없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창17장에서, 99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행위완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례도 행하라도 하시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의혹(疑惑)의 강은, 여전히, 다른 견에서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하는 것이, 창 17:17-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 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실상(實像)이었다면, 우리는 그의 믿음/의롭다하심이 어디로 도망간

것인가 하는 회의적(懷疑的)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이런 놈 봤나!” 하면서 책망이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니가 믿음으로 내게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 이냐? 참 부끄럽다!”고 해도 할 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감정(感情)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예견(豫見)했다는 듯이 오히려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시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言約)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시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창17:19-22)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그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말속에 들어있는 함의(含意)를 보신 것입니다. 13살이나 된 이스마엘이 있는데, 다시 아들을 주시면,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겠느냐. 낙심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아브라함이 의심을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위적(人爲的)이고, 인간적(人間)인 방법. 즉, 젊은 여종을 취해 아들을 낳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다는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창조(創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행하시는 것으로 대체하시는 무력(無力)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그는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부족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고, 보다 더 구체적(具體的)인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곧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까지 말씀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재미있는 분이며, 유머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부부가 속으로 웃는 것을 보고서, 지으신 이름입니다. 아브라함(17:17)과 사라(18:12)의 웃음을 풍자해서 만드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기(氣)가 막혀 웃는, 불신의 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그 이름에 기억케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을 감지하십니다.

이삭을 낳은 후, 사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21:6).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점진적(漸進的)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알려주시는 일은 적습니다. 오히려 한걸음씩, 한 단계씩,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못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때로 인간은 하나님에게 투정하고 불만하고 불순종하기까지 합니다. 왜냐면 모든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미리 보여주면, 그들은 미리 나자빠질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미래를 미리 보여 주시면, 아마 우리들은, 미리 포기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갈바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방향(方向)만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떠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한걸음씩 우리의 믿음을 키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태어날 후손의, 출생시기를 분명하게 <내년 이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삭’과 언약(言約)을 갱신(更新)하겠다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때가 되니..모든 것을 구체

적(具體的)으로 분명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이것이 인생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3.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23-25)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인데, 많이 강조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도바울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연관성(聯關)과 차이성(差異)을 말합니다.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점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아브라함은 후손을 밤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代贖)의 죽음, 십자가(十字架)의 주님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4:23-25절의 말씀입니다.

23.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죽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수(必修)불가결(不可缺)한 존재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선 예수님의 죽음도 필요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필요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죽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이 4:25절이 우리의 복음을 설명하는 핵심구절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구절은 외어야 하는 구절입니다. 지금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 기간인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성도에게 적용시키면서, 반대되는 의미를 지닌 두 구절을 대조시키고 있다. 즉 '우리 범죄함'과 '우리를 의롭다하심'이 대조되어 있고,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와 '위하여 살아나셨으니라'가 대조되어 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 줌이 되었다는 것은, 죽음에 내어줌 즉,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적(代贖的)인 죽음을 의미하며,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심은, 그 대속의 결과인 '의'를 보증하고 선포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단어하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후손이라는 단어입니다.

후손(後孫)이라는 말에 대해서, 참고해야할 말씀은 사도바울의 갈라디아서 3:16절입니다.

요한복음 3:16절에 독생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 아시지요? 비슷한 컨셉입니다.

갈라디아 3:16절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밤 하늘이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고 할 때, 하나님은 복수(複數)를 쓰지 않고 단수(單數)를 쓰셨다는 것입니다.(문법적으로 보는 분석입니다. 명사의 단, 복수) 그 단수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not, to seeds, as of many; but as of one, to thy seed. KJV)

이것을 시간(時間)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오실 후손인 예수님을 미래(未來)로 믿어 의를 얻은 것이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과거(過去)로 믿고, 의를 얻는 다는 것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관점(觀點) 아닙니까? 지금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복수를 쓰지않고 단수를 쓴 것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도를 본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말씀하셨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브라함의 후예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그 의뎌된 지체인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수많은 그리스도인으로 본 것이란 말입니다.

아직 계시의 점진성으로 인해, 그 사실을 알리가 없는 아브라함은, 그 말을 자기의 혈통적(血統的)인 후손(後孫)으로만 보았을 것이지만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세상에 온후 그 사실을 깨달은 바울을 통해 이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신비(神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류구원의 계획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의 삶은 변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6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 뽕나무가 어떻게 짠 바다에, 깊은 바다에 심길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인간이 옮기지 않고 말씀으로 명령함으로 말입니다.**

누가복음 13:19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이것은 작은 것이 창대하게 되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1. 믿음이란, 내가 바라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진리.
2. 누구든지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며, 믿음은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진리.
3.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

우린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경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린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 되심, 처음과 나중이며, 그만 모든 만물의 창조자와 섭리와 통치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짐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7-8절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불의한 재판관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11장의 문장기술방식은 “**믿음으로 00**는”입니다. 00에는 사람이름이 들어갑니다. 히11장을 펴고 일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7절입니다.

7-13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도**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그 내용이 다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11:4-5)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11:25,26)

믿음으로 가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11:31)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떨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플러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치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32-40)

*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한 부분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중 어떤 자들은 현실세계에서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그렇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언급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란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현실세계에서 약속된 것을 실제로 받지 못하였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하늘나라에서 더 좋은 상급을 받도록 예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식 생애동안에, 자기의 후손은 이삭밖에 못 보았을 것이며, 그 약속받은 거대한 땅도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거기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현실세계에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

을 가지시겠는지요? 아브라함처럼. 롬4:20-22.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堅固)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靈光)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確信)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義)로 여겨졌느니라**”는 삶을 살아가실 것이지요.

비록 창18:11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의심치 않고 믿음을 견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의로여기심을 받으실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겨자씨’같은 작은 믿음만 있다면, 환경도 바뀌며, 불가능(不可能)한 일도 가능케 되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존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기도 :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때로 바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 확신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노래하며, 살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